

차가 참 진하다. 색도 향도 맛도. 명정 스님의 방에서 마시는 차 맛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 난다. 혀 끝에 알싸하니 감도는 차 맛과 향도 좋지만 차를 다 넘긴 후 입에 고이는 침이 달콤하기 그지없다. 침이 절로 꿀꺽 넘어간다.

명정 스님의 방. 스님은 다관 가득 차를 붓는다. 보통의 경우라면, 십 수분은 족히 우려먹을 수 있는 양이다. 찻잔에 차를 따르더니 찻잔을 든다. 잔을 부딪치며 하시는 말씀. “간배!” 방안에 웃음이 한바탕 인다. 주옥 떨어지고 잔을 내려놓으며 이어지는 말씀. “누가 왔는지 맛 조오라!”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장. 근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경봉 스님을 시봉했고, 선방에서의 정진에도 치열했던 명정 스님. 경봉 스님의 문집은 물론 <경허집><신심명>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낸 명정 스님에게 사람들은 근엄하고 심각한 모습을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갈 때가 많다.

“일생을 통해 스승을 만난 행복이 몇 개 같다”며 스승 경봉 스님과 일화를 청하자 대뜸 새끼손가락을 펴 보이며 “난 이거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거 만난 얘기라야 짜릿짜릿했다. 어찌구 저찌구 할 말이 많을 텐데...”라며 짐짓 심각한 표정이다. 새끼손가락은 애인을 말할이다.

스님의 대화법은 독특하다. 물음에 직답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드문드문 느끼게 이어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 가서야 답이 나오는 식이다. 한참 후에야 그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답은 피하되 핵심은 고스란히 담고 있어 잡스런 맛이 없으면서도 담백하고 진한 차 맛을 담았다. 얘기를 듣는 동안, 침이 꿀꺽 넘어가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차 우리는 것을 보고 집에 가서 그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안 난다고 해. 똑 같은 양의 차를 넣고 물 온도도 스님이 하는 그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안나요 그러는데, 우습지. 하루 이틀에 그 맛이 나는 게 아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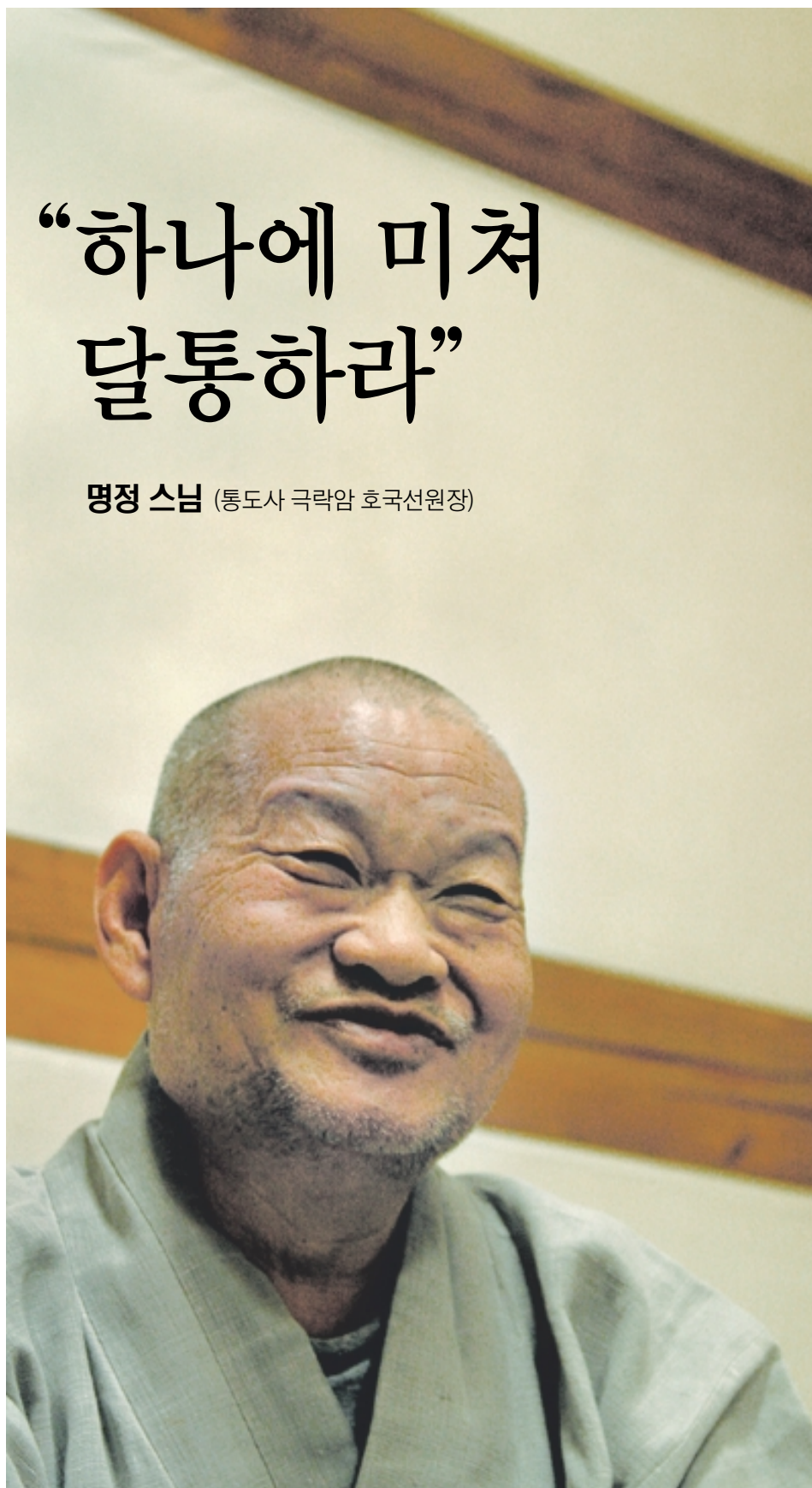
스님에게 차를 우리는 일은 스승 경봉 스님에게서 받은 화두만큼이나 지중한 수행방편이었고 수행의 열매 그 자체였다. ‘한 잔의 차에 선가(禪家)의 살림살이가 모두 들었다’는 말을 빌리더라도 출가 이후 지금까지 차를 우려며 그 안에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명정 스님의 차 맛이 나왔다.

막신일호(莫神一好), 하나를 좋아해서 미치고 통달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고 완전한 것은 없다는 순자의 말이다. 그것은 명정 스님이 허리춤에 차고 다닐만한 금언이라고 여기는 말이다. ‘하나를 좋아하는 것’ 그 하나를 만나는 일이 어디 쉬우랴? 스님에게 그 하나는 자기 존재에 파고드는 일이었다. 근본 바탕을 찾는 그 ‘하나’ 속에 치열한 선방 수행도, 스승을 모시며 차를 우리는 일도 모두 들어 있었다. ‘하나를 좋아해서 미치고 통달하는 것’ 그것이 스님의 일상이었다.

스님은 손꼽힐 정도로 초서 번역에 아주 능하다. 흘러 쓴 경봉 스님의 법문 번역은 물론, 경봉 스님과 당대 선지식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책으로 펴낼 수 있었던 것도 스님의 초서번역 실력과 뛰어난 문장력 덕분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드물다.

“내 책상 앞이 둘러 끼겨져. 의자에 앉아 꽤나 끔찍했나봐. 이걸 어떻게 풀이 해야 하나. 공- 이게 무슨 뜻이고, 공-” 스님의 책상 앞 의자가 놓였던 자리가 정말로 패어 있다. 스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책상머리에 앉아 씨름했는지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한문 공부해 해서 어느 정도 통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간만에 진지한 고백을 한다.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 원양수충증군간(鴈養繡從君看) 막과금침도여인(莫把金針與渡人). 원양새를 수놓아 보일지언정 바늘이야 주지 말게나. 원양새를 수놓는 것이 일호(一好)의 끝결지야. 그런데 그 일호는 자기가 미치고 환장해서 해매고 땀



“하나에 미쳐 달통하라”

명정 스님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장)

‘막신일호’ 근본 바탕 찾는 수행도 차 우리는 일도 미쳐야 흘려 쓴 경봉 스님 법문 책으로 낼 정도로 초서 번역 탁월 선지식들과 주고 받은 편지글 등 모아 유물관 건립 예정

흘리며 찾는 보물이지 바늘을 쟁겨 준다고 수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 바늘을 쥐봐야 솔데가 없는 거지.”

명정 스님이 공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라며 영구 어투를 흉내 내는 이유는 바로 바늘을 건네 봐야 솔데가 없다는 말일겁니다. 하나에 미쳐 한곳으로 깊이깊이 폭 빠져버릴 수 있는 마음 속의 불씨는 스스로 지퍼야지 어디 가서 물을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별난 이력도 많다. 한때 스님은 탁구를 무척 즐겼다. 현직 선수마저 코를 납작하게 할 정도의 실력자인 스님은 탁구를 시작하면 서너 시간은 예사였다. 27살 여름, 송광사에서 한철 살 때는 대들보

를 짊어지고 다닌 일화도 있다. 대처승 정화가 탈 때 목수들이 설치고 해서 목수들 기 꺾으려고 일부러 그랬단다. 어림잡아 쌀 네가마 무게의 대들보를 짊어지는 것을 본 이후 목수들이 꼼짝 못했다고 한다. “최추 엑스레이 찍었는데 마디마디가 다 마모됐다고 해. 짊어서 왜 그리 지랄병을 하며 컸는지 후회스러워. 하하하!”

현재 호국선원에는 큰방에서 21명, 후원에서 10여명이 정진 중이다. 대중들에게 엄하냐는 질문을 하자 대답대신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송광사에서 입승보던 스님이 소임 맡아 놓고 가버려서 내가 소임 사는데, 통광 스님이 나한테 애들한테 잔소리 지나치게 한다고 그러잖아. 그때만 해도 성질이 눈

에 안 맞으면 어찌구저찌구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배를 끌고 산으로 가도 그런 일도 있구나 하지만 말아야.” 후학들을 대하는 스님의 일상을 짐작케 한다.

스님에게 스승 경봉 스님은 일생을 바쳐놓은 돌도 없는 ‘애인’이었다. 스승과의 첫 만남을 얘기하기 위해 스님은 1959년 10월 24일 해인사로 출가했던 날의 얘기부터 꺼냈다. 스님식으로 표현하자면 ‘어찌구저찌구’의 사연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가할 당시에 금봉 스님, 고봉 스님, 효봉 스님, 경봉 스님 등 ‘봉’자 돌림 스님 10여명이 계셨어. 수좌들끼리 수군수군하는 소리 들으니 봉이 십봉이 낫았는데 어디로 갈까?하는 거야. 함께 공부하던 스님 말을 듣고 해제 며칠 뒤에 조그만 괴나리뽀족하고 이불 싸들고 도망치듯 해인사를 나와 경봉 스님을 찾아 통도사로 향했지.”

커다란 봉우리를 찾아 떠나온 길의 끝에 극락암이 있었다. 고속버스가 없던 시절, 그렇게 스님은 버스를 타고 물금에서 내려 포교당서 하루 밤을 보내고 양산까지 20리를 꼬박 걸어야 했다. 다시 양산에서 신평까지, 그리고 나무 한그루 없이 이어진 극락암까지 가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노장님 만나러 온 거니까’ 하며 입심으로 툭툭툭 걸어서 마주한 극락암.

“삼소굴 유리문이 드르륵 열리고 우리 스님을 처음 천견했는데 키는 190cm가 넘지, 스님 모습은 노장이 아니고 아주 자애스러운 의사 할아버지 같아. 절을 하고 찾아온 연고를 말씀드리자, 손도 만져보고, 시시콜콜 다 물어보시더니 시봉 하라고 하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가 시봉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후원에서 채공을 6개월 하다가 시봉을 시작하게 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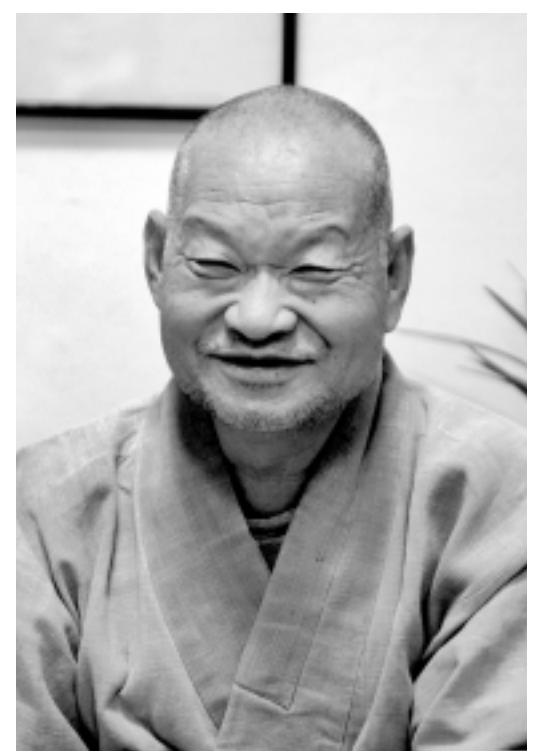
입영통지서가 나오기까지 5년 동안 시봉했다. 입영 직전까지 49재 준비를 맡으며 마쳐놓고 스님께 “스님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인사를 드리니 “너 정말 갈래?” 하셨다고 한다. “아, 글썽 군대가 정말 가고 가짜로 가고 그러냐? 노장님이 그 당시 돈으로 500원을 주셨어. 그 돈으로 PX가서 빵 사먹고 그랬어.”

유난히 기록을 꼼꼼하게 했던 스승이었고, 당대의 선지식들과 서간으로 선문답을 주고받았던 경봉 스님이었지만 제자 명정이 없었다면 경봉 스님의 유품들이나 서간문들은 사장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흘러 쓴 스승의 글에 담긴 선황들을 아름답게 풀어 책으로 펴낸 제자는 스승 입적 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승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게 하고 있다. 스승의 입적에 대한 물음에 끝내 답조차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인지 모른다. 재차 여쭙지만 스승 입적 후의 얘기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도 스승이 책갈피 안쪽마다 ‘증명정(證明正)’이라는 글과 함께 계승까지 덧붙여 남겨준 수많은 책들과 편지글, 시, 친필들에 둘러싸여 스승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

스승의 유품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명정 스님은 조만간 극락암에 유물관을 지을 예정이다. 스승 경봉 스님의 친필들과 한암 스님, 용성 스님, 춘성 스님, 운봉 스님, 설봉 스님, 벽암 스님, 용성 스님, 운허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과 주고받았던 편지글 등을 일방에 선보이기 위해서다.

여름과 가을의 뚜렷한 경계는 없지만 계절은 분명 오간다.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을바람이 선을 불어오고 아, 가을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통도사 극락암에서 명정 스님을 만나 뵙고 돌아온 다음 날, 분명 한여름임에도 문득 가을을 느꼈다. 청량한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드는 순간의 느낌, 혹은 스님의 방에서 차를 넘긴 뒤 입안에 고였던 달콤함의 맛 같은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때 아닌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스님이 우려낸 한 잔의 차를 마셔본 사람이라면 이 ‘가을’ 느낌을 짐작할지도 모를 일이다.

글·사진=천미희 객원기자



스승인 경봉 스님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명정 스님.

명정 스님은 1943년 김포에서 태어났다. 59년 해인사로 출가했고 1961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60년부터 82년까지 경봉 스님을 시봉했으며 70년대 후반 이후 극락암에서 머물며 경봉 스님의 법문집 <경봉스님 말씀> 큰스님들의 서간문을 엮은 <삼소굴 소식>을 비롯 <차 이야기 선 이야기> 등을 펴냈다. 최근 스님은 경봉 스님 사친첩 발간 준비를 거의 마쳤다.



공양도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영물조각 · 옥불조형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